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근거 제공과 평가

박윤형

보건행정학회지 편집위원장,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Evidence and Evaluation Research for Health Care Policies

Yoon Hyung Park

Editor-in-Chief,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Soonchunhyang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Cheonan, Korea

학술논문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요건은 새로운 아이디어나 방법을 제시하는 새로움(novelty),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또는 이론을 제시하는 혁신성(innovation), 그 시대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중요한 의미(significance) 중 하나 또는 2개 이상을 내포하고 있어야 한다. 이번 호에는 연구자들이 최근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평가하고 고찰하여 보건의료정책을 지원하는 내용이 게재되었다.

증가하는 보건의료비의 실체를 과학적으로 추계하였고, 일반의약품 슈퍼판매와 나아가서 인터넷 판매까지 추진하려는 정책을 위해 일본의 제도를 돌아보는 연구와 외국인 환자 유치와 의료관광을 위해 필요한 문화적 역량, 대도시 중소병원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전문병원의 확대에 필요한 병원전문화 지수, 그동안 계속해서 시범사업을 하다 최근에 전면 적용된 포괄수가제에 대한 평가, 2016년 세계당뇨병 예방관리의 해에 의미 있는 당뇨병 관리문제에 관한 연구결과이다.

먼저 Jeong과 Shin [1]은 '1970-2014년 경상의료비 및 국민보건계정: SHA2011의 적용'에서 OECD에서 정한 보건계정체계(System of Health Accounts, SHA)를 소개하고 1970년대부터 국민의료비를 추계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상의료비는 1970년 1,000억 원(gross domestic product [GDP]의 2.7%)에서 1980년 1조4천억 원(3.5%), 1990년에 7조3천억 원(3.7%), 2000년 25조 4천억 원(4.0%), 2010년 81조 원(6.4%), 2014년에는 105조 원으로 GDP의 7.1%로 추계하였다. 보건의료분야의 기초연구가 빈약한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기초연구이므로 많은 인용이 기대된다.

Kim 등[2]은 '병원전문화가 건당 재원일수와 건당 의료비에 미치

는 영향'에서 진단군별 의료전문화지수(category medical specialization, CMS)와 내부 허핀달-허쉬만 지수(inner Herfindal-Hirschman Index, IHI)를 소개하고 CMS는 병원의 규모가 증가하면서 상승하나 IHI는 병원의 규모가 증가하면서 감소하고 두 지표 모두 증가할수록 건당 재원일수와 건당 진료비는 감소한다고 연구하였다. 따라서 각 병원들은 전문화지수를 높일수록 경영에는 유리하다고 분석하였다.

Park 등[3]은 '대구지역 의료서비스 제공자들의 중국 문화에 대한 문화적 역량과 중국 의료관광객의 만족도'에서 코디네이터 등 의료제공자에게 중국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하고 중국에서 온 환자들에게 서비스 품질을 조사하여 향후 해외환자 유치 또는 의료관광에 필요한 기본지식을 축적하였다.

Park 등[4]은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비조절 관련 요인분석'에서 거주 지역과 당뇨병 유병기간, 음주, 조절약의 종류, 수면시간 등 다양한 요인에서 조절률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Choi 등[5]은 '포괄수가제도 당연적용 효과평가'에서 포괄수가제도 당연적용 전후를 비교하여 환자의 재원일수는 감소하였고, 의료보험 급여비는 증가하였으며 재입원율은 감소하였다고 분석하였다.

최근 정책의 방향은 근거중심(evidence based)과 거버넌스(governance) 강화, 역량 강화와 위임(empowerment) 등을 키워드로 하고 있다. 본 학회지에서는 정책에 필요한 많은 근거를 제시하여 왔다. 앞으로 보건의료정책 강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및 강화와 역량 강화와 위임에 관한 통찰력 있는 연구를 기대해 본다.

REFERENCES

1. Jeong HS, Shin JW. 1970-2014 Current health expenditures and National Health Accounts in Korea: application of SHA2011. *Health Policy Manag* 2016;26(2):95-106. DOI: <http://dx.doi.org/10.4332/KJHPA.2016.26.2.95>.
2. Kim JH, Park EC, Kim TH, Lee KS, Kim YH, Lee SG. The impact of hospital specialization on length of stay per case and hospital charge per case. *Health Policy Manag* 2016;26(2):107-114. DOI: <http://dx.doi.org/10.4332/KJHPA.2016.26.2.107>.
3. Park SR, Lee KS, Kim SK, Hwang TY. Cultural competence of health care providers in Daegu and satisfaction on health care services of Chinese medical tourists. *Health Policy Manag* 2016;26(2):115-124. DOI: <http://dx.doi.org/10.4332/KJHPA.2016.26.2.115>.
4. Park J, Lim S, Yim E, Kim Y, Chung W. Factors associated with poor glycemic control among patients with type 2 diabetes mellitus: the fifth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2010-2012). *Health Policy Manag* 2016;26(2):125-134. DOI: <http://dx.doi.org/10.4332/KJHPA.2016.26.2.125>.
5. Choi JW, Jang SI, Jang SY, Kim SJ, Park HK, Kim TH, et al. The effect of mandatory diagnosis-related groups payment system. *Health Policy Manag* 2016;26(2):135-147. DOI: <http://dx.doi.org/10.4332/KJHPA.2016.26.2.135>.